



+. 평 화

사랑하는 수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관구에서 씨튼가족 사도직을 담당하고 있는 장혜경 헤레나수녀 입니다.

저는 1991년 02월 17일 입회를 했고 2000년 01월 31일에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의 입회자는 한국 관구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많은 26명이었습니다. (현재도 제일 많은 12명의 수녀가 같은 그룹입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에는 한국의 첫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신부님의 성지 2곳이 있습니다. 두 성지 중간 지점에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마을이 있고 ‘교우촌’이라고 불릴 정도로 천주교 신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수녀원이나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께서도 어린시절 꿈이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5자매 중 맏이인 제가 수녀원을 간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 말배로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허락하셨습니다. 현재 가족 중, 수도회는 다르지만 이모 할머니와 고모들 그리고 사촌동생이 수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수녀가 되고 싶어서 밤마다 ‘부족한 저도 수녀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성모님께 몰래 몰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가족들 안에서 눈으로 귀로 악기를 배웠습니다. 독학으로 클래식 기타를 치시던 삼촌 손을 보며 익힌 기타 연주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타를 치던 어느날 부터 성령께 청했습니다. ‘저의 기타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당신의 사랑과 치유를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요, 그것은 제가 성령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중 하나입니다. 씨튼가족 사도직을 하기 전까지 4개의 본당과 3곳의 피정사도직 그리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여러 모습의 사람과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치유하시고 다른 이에게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첫 발을 디디도록 부르신 날은 눈이 참 많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시골 작은 피정집에 계셨던 수녀님 손에 이끌려 광주 본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떨렸고 성당에 들어가 기도하기 위해 무릎 꿇곤 겁도 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집에 살 수 있게 해주시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겁도 없이 했던 이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드린 고백을 살아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씨튼가족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한국 관구 씨튼가족은 1985년 11월 3일, 서창 수녀원에서 53명의 숫자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올해 35년을 맞이했습니다. 1985년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 성녀 시성 10주년’을 맞아 시작한 씨튼가족 첫 모임에서 그 당시 지부장이셨던 ‘문말린 수녀님’은 취지문을 통해 ‘성녀 엘리사벳 앤 씨튼’의 삶을 본받아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 안에서 기도와 작은 도움으로 사랑의 씨튼 수녀들의 수도생활과 사도직을 격려하는 분들이 씨튼가족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씨튼 가족들은 그렇게 씨튼수녀들의 역사와 함께 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섭리하심에 모든분들을 맡겨드리며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씨튼가족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Peace!

Dear Sisters! Greetings from Korea! I'm Sr. Jang Hae Kyeong, director of Seton Family of Korean province. I entered on February 17, 1991 and made perpetual vows on January 31, 2000. Twenty six women entered on that day and this is the largest group in the history of Korean Province. (Our group remains number one, today we are twelve.)

My birth place is famous for the two shrines of St. Andrew Kim (the first Korean priest). Actually I was born in the village located admist the shrines. There were many faithful in the past. It was natural for children like me from this area to think of entering religious community and seminary. Even my grandparents and father had a dream of becoming priests and religious when they were young. Therefore, when I, the oldest of five siblings, decided to enter our community, there was no problem at all to persuade my parents. They took this for granted because parents should offer their first child to God. I have several aunts and great-aunts who are religious in other communities. But they don't know that I used to pray to Blessed Mary every night to ask her help to let me become a religious.

Music is my favorite and I learned to play musical instruments by listening and seeing my family members play. My uncle taught himself to play guitar and I learned to play classic guitar from him. One day when I was playing guitar, I asked the Holy Spirit to make me an instrument of love and healing for the people listening to my music. This is my everlasting topic of my prayer. I was missioned to four parishes, three retreat houses and social ministries. I could encounter the poor and marginalized in various ways. I also met God who heals me and leads me to other people in need. Now I am in charge of Seton Family.

On a snowy day, I met our sisters for the first time. The sister whom I knew personally took me to the Provincial House and I knelt in prayer asking God to let me live in this place forever. Finally He listened to my petition and I entered our community. I am hoping that I keep my promise to God (In those days, I swore I would do everything only if I could live as a Sister of Charity.) until the end of my life. I know that it will not easy at all. Therefore, I always confess to the Seton Family members whenever I meet them: "God always listens to our prayers."

The first Seton Family gathering was held on November 3, **1985** at Seo-Chang, place of the former Regional House of the Korean Province. Fifty three people gathered at that time and thirty fif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meeting. The gathering was held as **an event for celebrating 10th anniversary of Mother Seton's canonization**. Sr. Marlene, regional superior at that time, told us that **the Seton family is composed of the laity who live faith following the footsteps of Mother Seton in daily lives and encourage the sisters with prayer and support**. Seton family members are so precious to us along our history.

I pray for and place all the members of Seton Family in Divine Providence. Lord! Grant your peace to all of them and let them remember your everlasting presence in themselves! Amen!

